

# 샘



김 홍 식

## 정류소에서

행 참, 괜히 데리고 왔습니다.  
 왜 자꾸 팔을 잡아잡니까. 착한 일을 하려면 좀 들키셔야겠는데.  
 주명이는 강성이에게 우정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좀 참으라는 뜻입니다.  
 《씨, 나 집에 갈래.》  
 강성이가 더는 못 참겠던지 씩씩거리며 뺨 돌아섰습니다.  
 《응?》  
 야단입니다.  
 어떻게 열려야 할지?... 주명이는 얼른 강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좁전에 강성이가 주었던 사랑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자.》  
 《씨, 너 정말.》  
 강성이는 눈을 찢 흘기더니 한발자국 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그가 고집을 부리면 유치원에서 동무 동무 뒤통이를 잡고 씩씩 달리던 열차놀이도 고장났다면 세워야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주명이는 재빨리 강성의 앞을 가로막고 두팔을 짝 벌렸습니다.  
 《하하하.》  
 강성이가 갑자기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주명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너희들 참 재미있게 노는구나. 왜 그러니?》  
 전차를 타려고 정류소에 줄을 맞춰 서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묻는 말입니다.

참, 참. 이제 둘만 아는 비밀이 새나오면... 지킴판에 손을 댄 것처럼 급하고 따가운 일이었습니다.  
 주명이는 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변절자야. 약속하구선.》  
 그러자 강성이가 몸을 흠뻑하더니 돌아섰습니다.  
 《좋아, 이제 오는 궤도전차는 사람이 많아도 무조건 타야 돼.》  
 《응.》  
 주명이는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빈자리가 없어도 전차를 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있어 전차를 두번씩이나 그냥 지나보낸 그들이었습니다.  
 꼭 의자에 앉으려고 말이예요.  
 그때문에 강성이가 참을성을 잃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렸던것입니다.

## 착한 일

그들은 기다림줄의 맨 앞자리에 다가와 섰습니다.  
 전차가 왔습니다.  
 제일먼저 그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입니다.  
 주명이는 자기가 앉고싶었지만 강성이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함께 하는것으로 될것

이기에문입니다.

전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명이는 휘휘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성어도 그를 따라 두리번두리번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영예군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엄마가 눈에 띄우면 좋으려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명이는 별수없이 옆에 서있는 실장엄마를 강성이만 보게 눈을 감추어가며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뚱뚱한 그 엄마를 《실장동지!》라고 불렀던것입니다.

강성이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 된셈입니다.

강성이가 실장엄마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자리에 앉겠다고 헤덤비더니 웬일이냐?》

그 엄마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주명이는 귀뿌리가 빨갛게 달아오르는것을 느꼈습니다. 용타고 칭찬해줄줄 알았는데 이젠 뭇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개미굴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누구든 앉아야지요. 참, 박사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예, 박사요?! 저... 전 아닙니다.》

《텔레비존에서 보았는걸요 뭐.》

좀 젊은 아저씨를 잡아끌며 그 엄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처럼 말입니다. 주명이는 속이 까부장해졌습니다.

체, 착한 일은 누가 하니?!

전차 한가득 짝 차게 칭찬을 받을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뚱뚱한 실장엄마한테 착한 일만 떼우고말았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강성이가 내여준 자리를 박사아저씨가 앉지 않아 빈자리가 되어 남아있었던것입니다.

박사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이 애를 제 자리에 앉힙시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덤빈 모양인데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요.》

실장엄마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애야, 너도 함께 가는것 같은데 나란히 앉아라.》

강성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주명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헉, 이건 뭐가?!)

주명이와 강성이가 하려던 착한 일은 어른들의 착한 일로 되고말았습니다.

## 퐁퐁 맑은 샘

주명이는 잡고있는 의자가름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절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말이예요.

강성이가 그를 보며 씩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절대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명이는 마음을 꼭 맞춰주는 강성이가 얼마나 고운지 몰랐습니다.

《빨리 앉아라. 너희들이야 나라의 왕인데 이 박사보다 더 세지.》

박사아저씨가 주명이를 잡아끌었습니다.

주명이는 힘을 주며 가름대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뒤에 앉아 보고있던 머리 희숙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박사선생이 앉지 못했는데 착한 애들이 앉을게 뭇니까. 박사선생님은 여기 앉으십시오.》

《저야 젊었는데 나이많은분이 앉으셔야지요.》

《그럼 여기 앉으십시오.》

맞은편 옆자리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저기서 저마끔 자리를 권하는 소리가



들러왔습니다.

《봐라, 너희들때문에 모두가 일어서지 않았니. 자, 빨리 앉아라.》

그들이 박사아저씨의 말을 듣고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주명이의 속이 바그그 끓어올랐습니다.

어쩐담. 어쩐담. 앉아야 할가? 그냥 서있어야 할가?

모두가 눈총을 쏘는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주명이는 살그머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활짝 웃음발을 피우는 사람들뿐입니다.

왜 욕하는 사람이 없을까?

《허허. 너희들때문에 모두 서가게 되었구나.》

머리회숙한 사람이 밝은 웃음을 지으며 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모두 서서 가니 마음이 달아오르는게 참 좋군요.》

실장엄마가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참말로 좋다는것을 새삼스레 더 깊이 깨닫게 해주누나.》

박사아저씨가 주명이와 강성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주명이의 작은 가슴이 활 달아올랐습니다.

불쑥 그는 자기들이 한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생들같은데 웃사람도 없이 너희들끼리 어디 가니? 참, 용감하구나.》

실장엄마의 물음에 장해보여 강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착한 일을...》

말이 끊어졌습니다. 주명이가 강성이의 팔꿈치를 툭 쳤던것입니다. 망신을 당할것 같아서였습니다.

다행히 전차가 다음정류소에 멎어섰습니다.

제껴 주명이와 강성이는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보니 자기네 유치원 앞거리와 비슷한게 다시 돌아가자면 어디서 궤도전차를 타야 할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이런건 왜 미처 생각 못했을까?

강성이만 옆에 없었다면 주명이는 안타까와 왕-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자, 나와 함께 가자.》

뒤따라 내려 자기들을 눈여겨 살펴보았는지 실장엄마가 주명이와 강성이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실장동지! 어디 갑니까?》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을 데려다주고 인차 돌아올게요.》

그러니 자기들때문에 우정 간다는게 아닙니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옵니다.

주명이의 눈가에 맑은것이 가랑가랑 고여올랐습니다.

《내 너희들 마음을 안다. 웃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려고 한 기특한 마음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을 칭찬받고싶어 하지 말고 진심이 우러나와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칭찬갈기도 하고 타이름갈기도 한 실장엄마의 말이 그들의 귀속에 쑥 스며어들었습니다.

웁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주어 칭찬을 받고 빨간별까지 받은 별이가 부러워 주명이는 강성이를 데리고 우정전차에 탔던것입니다.

주명이는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웃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면서도 왜 착한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는지.

《너희들 샘을 본적 있니?》

《예.》

《샘터에서 풍풍 솟구쳐나오는 물이 얼마나 맑니. 너희들의 착한 마음도 샘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솟구쳐나오게 해야 한단다.》

주명이의 머리속에 만경봉에 올랐을 때 샘터가 떠올랐습니다.

시원한 샘물을 마시며 얼마나 신기하게 그 샘을 바라봤습니까.

맑은것이 계속계속 솟구쳐나와 졸졸 흐르는것을 말입니다.

위해주는 마음도 샘처럼 절로 솟구쳐나오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주명이는 이 시각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명이의 눈에 실장엄마가 자기의 친엄마처럼 비껴들었습니다.

방실 웃음을 지으며 강성이도 기뻐합니다.

오늘 주명이와 강성이는 빨간별보다 더 큰 사랑과 정의 샘을 가지게 된셈입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려 그 귀중함을 다 알수 없는 정의 샘이 그들의 맘속에서 풍풍 솟구치고있었습니다.

정의 큰 바다에 흘러들 맑고맑은 샘이...